

난 빨래를 하면서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다려요.  
 잘 다려진 내일을 걸치고  
 오늘을 살아요.

뮤지컬 <빨래> 중에서

겨우내 채워둔 옷장을 비워내 세탁을 하다 보면  
 계절이 바뀌고 인생이 쌓여가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렇게 우리 걸모습이 깔끔하고 말쑥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속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들의 4월은 우리 영혼에 쌓인 티끌들을 털어내는 시간이 되길,  
 그래서 더욱 맑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18)



# 용기내어 물어보세요

김 종 철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

어느 날 공자(孔子)가 복잡한 구멍이 있는 구슬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공자는 구슬을 실로 꿰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계속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공자는 여러 궁리 끝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옳지. 이런 문제라면 바느질을 잘하는 아낙들이 잘 알 거야.’

마침 멀지 않은 곳에서 여인들이 뽕잎을 따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글을 모르는 여자에게 의견을 묻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여인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공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 아낙이 말했습니다.

“나리, 끈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공자는 여인의 말을 듣고, 골똘히 생각한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자는 개미 한 마리를 잡아서 개미의 허리에 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개미를 구슬의 한쪽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개미가 들어간 반대편 구멍에는 끈을 발랐습니다. 개미는 끈 냄새를 맡으며 왔다 갔다 하더니 마침내 반대편 구멍으로 쏙 빠져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공자는 마침내 구슬에 실을 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생긴 고사성어가 바로 ‘공자가 구슬을 꿰다’라는 의미의 공자천주(孔子穿珠)입니다. 즉 모르는 게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묻더라도 꼭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엄청난 지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 연구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 의사, 여러 종교에서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인간에 대해 고민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5)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6)

성경은 ‘죽어도 살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삶을 영생(永生)이라고 부르는데,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궁금하다면, 공자처럼 용기를 내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1921년 전주  
땅에 엘머 티  
모시 보이어(  
Elmer T. Boy  
er)라는 이름

을 가진 28살 선량한 인상의 미  
국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리노이 태생으로, 신  
학교를 졸업하고 아칸소에서 목  
회하던 중 동방의 한 나라에 대  
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곳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보이  
어는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선교사로 자원합니다.

평소 설교를 통해 ‘복음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  
어야 한다’ 라고 부르짖던 그는 이제 낯선 이방의 땅에 발을  
붙이고서, 자신의 외침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보  
다 먼저 전라도 선교를 개척한 ‘7인의 선배대’와 보이어는  
동역을 시작합니다. 한국말이 아직 서투른 상태에서도 길가  
에서 만난 아이들을 붙잡고, 신기한 앰프 소리를 들려주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에게는 전주의 동쪽  
지역을 담당하도록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천성이 부지런하  
고 사명감이 투철했던 보이어는 가깝게는 완주군 일대, 더  
멀리는 진안, 장수, 무주까지 다니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65개나 되는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주  
동부교회**입니다. 그는 한국과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  
에까지 애정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어의 회고록 <  
한국 오지에 내 삶을 불태우며>를 들여다보면 그가 한국의

##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한 엘머 보이어 선교사



모든 것을 얼마나 아꼈는지 생  
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  
교사의 진심을 알아챈 한국인  
들은 원래의 이름 대신 ‘**보이  
열**’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부  
르며 그를 더 친근히 대했습니  
다. 이 때문에 1940년 태평양전  
쟁을 앞둔 일제에 의해 강제 추  
방을 당한 뒤에도 보이어는 사  
역지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  
했고, 결국 해방 직후인 1947년  
다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임지인 전남 순천에서 한센  
병 환자들을 돌보며, 여순사건과 6·25  
전쟁 등의 시련을 한국인들과 함께 목  
숨걸고 견뎌냈습니다. 늘 낮은 옷차림  
으로 지내면서도, 한국인들을 위해서  
는 더 좋은 옷가지와 더 나은 약품 하  
나라도 전해주려 애쓰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여 지금도 순천 기독교  
료소 마당에는 ‘보이열 목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침내 은퇴할 때가 되어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1965  
년 미국으로 귀국할 때 보이어의 평생 동반자였던 전주동부  
교회는 그의 환송식을 마련했습니다. “**44년간 내가 사랑  
하는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멋진 삶을 살았고,  
믿음과 복종이라는 모험 아닌 모험을 결코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그의 고백을 깊이 새긴 채, 전주동부교회는 90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정재영 기자

## 모현현대의원

원장 최 원 진

Tel. 063) 858-016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현로 112



\* 원장 최원진 안수집사(아내 서선미 집사)는 조학현 권사의 아들로서, 현재 유치부 총무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갈래요

만난 이 최동욱 · 이희옥 집사

부부는 주일 2부 예배에서 할렐루야찬양대 대원으로 나란히 섬긴다. 최동욱 집사는 베이스 파트, 이희옥 집사는 소프라노 파트를 각각 맡아서 온전한 화음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쓴다.

“찬양대에 서면 마음에 평안을 느낍니다.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남편 최동욱 집사는 찬양하는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내 이희옥 집사는 찬양대에서 또 다른 유익도 얻는다고 말한다.

“3년째 찬양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교회에 대한 더욱 깊은 소속감을 갖게 됐어요. 특히 연배가 높으신 대원들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생 시절 전북대 정보통신학과 동기로 처음 만났다. 서로에게 반해 캠퍼스커플로 사귀다 결혼에 이르러 한 몸이 되었고, 아영, 다영, 하영, 예쁜 딸 셋을 두었다. 최동욱 집사는 2013년 롯데리아 코아점을 인수해 경영을 시작한 후, 지금은 전북대점을 비롯한 세 곳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희옥 집사는 북전주농협에서 현재 부지점장 직책을 맡고 있다.

완주군 이서교회에 다니던 부부가 전주동부교회로 옮겨온 것은 2015년의 일이다. 처음부터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최 집사의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출석하던 모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한동안은 낯설고 힘들었다.

“그런데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점점 말씀을 통해 힘과 지혜를 얻는 것이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점점 많은 성도들을 알게 되자, 여러 대를 이어 신앙을 계승하며 헌신하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지



탱하며 산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욱 전주동부교회에 대한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이희옥 집사는 딸들을 데리고 유치부 예배에 참석하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고, 교회생활에 적응하는 계기를 찾았다고 말한다.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의 모임인 ‘위드 유’에 참석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솔직히 여러 모임에 소속하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위드 유’ 멤버들과 자주 만나 서로 인생의 고민과 경험들을 나누고,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적인 조력도 받다 보니 점점 웃을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위드 유’에 함께 하지 못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부부는 찬양대에서 이루는 호흡을 가정에서도 또한 각자의 일터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자 노력 중이다. 직장에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료와 고객들을 대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려 한다.

두 사람은 최근에 성경필사를 시작했다. “매주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강해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고, 그 결과가 성경을 직접 손으로 옮겨 쓰며 묵상하는 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본인들 뿐 아니라 주변에도 성경필사를 권유하며, 점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낀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그 힘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이렇게 발휘된다.

최동욱 집사와 이희옥 집사 가정은 그 비결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 듯하다.

| 정소연 · 이현미 기자

## 사람을 낚는 붕어빵 전도

매주 목요일 복음 전파 사명 실천



전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붕어빵 전도가 개시됐다. 올해에는 교회당 앞에서만 아니라 전주 중앙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상인들과 장보기를 하러 온 시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다. 기존의 붕어빵은 물론 팝콘까지 새롭게 동원해 전도지와 함께 나누는 전도방식이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다.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붕어빵

전도는 앞으로 학교 앞 등 다양한 장소들을 찾아가며 진행될 예정이다.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신 것처럼, 전주동부교회도 붕어빵 전도를 통해 같은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 이승은 기자

## 무덤은 비어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다



부활주일인 3월 31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와 행사들이 이어졌다.

이날 부활절 기념 예배에서 김종철 목사는 ‘부활 이후 무엇이 변했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결정적 사건이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주신 사건”이라면서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오후 찬양

예배에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내용의 칸타타를 연합찬양대가 연주했다. 각 주일학교 부서에서는 십자가 앞에 주님께 바치는 편지쓰기, 부활사건을 소재로 한 인형극과 성극 상연, 부활절 달걀 꾸미기 등의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고난주간에는 ‘마가가 전해 준 예수님의 고난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가슴에 새겼다. | 정재영 기자

## 집안도, 세상도 깨끗하게

아나바다운동 시작

오랫동안 묵혀있던 성경책과 교회요람들이 세상으로 나왔다. 신도관리위원회가 아나바다운동 차원에서 전교인을 상대로 수집한 이 책들은 재활용과정을 거쳐 다시 쓸모를 갖게 되며, 판매수익금은 선한 사업에 사용된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전주동부교회의 앞날이 기대된다. | 윤미영 기자







## 자녀들이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청소년기를 우리는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급격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변화를 겪습니다. 또한 자아정체성 확립, 독립성,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 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태풍의 가장자리를 지나는 시기가 청소년기,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인 것입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생명과 연계되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줄까?’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숙제도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1장 1절에서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에게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스스로 삶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는 증거를 자녀들 앞에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공공의 질서와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올바르게 확립하며 성숙함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하다는 것,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사사로운 기준을 공적인 기준에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개의 기준이 점점 일치할 때 비로소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며,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며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도록 사랑하며 끝까지 견디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부모들이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머지않아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감당할 몫입니다.

| 최조경 기자



## 전주동부교회 중고등부를 소개합니다



### ■ 2024 표어 |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 주 제 말 씀 |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수 24:14)

전주동부교회 중고등부는 중1부터 고3까지 청소년들을 섬기는 부서입니다. 치열한 경쟁, 주변의 과도한 기대와 부담, 정말 중요하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자력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중고등부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부탁드립니다.

■ 교역자 | 김성록 목사 ■ 부장 | 박웅 안수집사

■ 총 무 | 정소연 집사 ■ 학생임원 | 회장\_박주빈

부회장\_이하결 서기\_박성현 회계\_정혜슬 총무\_하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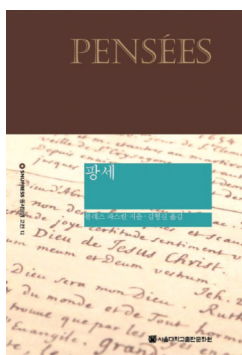
신간도서

# [팡세] [시골 친구에게 보낸 편지]

김형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17세기 프랑스의 수학 자이자 철학자이다. 물리학에도 조예가 깊어 압력에 관한 ‘파스칼의 원리’를 찾아냈으며, 그의 이름을 딴 ‘파스칼(Pa)’은 압력 혹은 변형력을 표시하는 기본 단위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독교인 사이에서 파스칼은 신학자로서 명성이 훨씬 높다. 특히 어려운 신학적 주제들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룬 여러 저서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불어불문학의 대가이자 전주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길 박사가 파스칼의 대표작인 <팡세>와 <시골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새롭게 번역해,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을 통해 출간했다.



<팡세(Pensées)>는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로, 파스칼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1670년 파스칼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원고들을 모아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파스칼씨의 팡세(생각)’이라는 이름의 출판한 책이 훗날 <팡세>가 된 것이다. 온갖 학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파스칼이 숨지기 직전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마지막 이야기들, 곧 죄/인간/은혜/하나님/예수 그리스도/믿음/교회/예언/기적/성경 등 12가지 신앙적 주제들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다. 파스칼이 얼마나 깊은 신앙적 고뇌를 가진 채 살아갔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의 지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도 삼을 수 있는 인류의 고전이다.

<시골 친구에게 보낸 편지>는 파스칼 당대의 프랑스 파리에서 앙투안 아르노라는 젊은 교수가 신학적 논쟁에 휩쓸려 탄압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

된 작품이다. 아무도 현실 권력 앞에서 부당하다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스칼은 이 책을 통해 과감하게 논쟁 속으로 뛰어들었다. ‘루이 드 몽탈트(Louis de Montalte)’라는 가명으로 나선 파스칼은 총 18통에 걸쳐 가상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앞서 문제가 되었던 여러 신학적 쟁점들을 다룬다. 변증법 아이러니 웅변 등 갖가지 수사학적 무기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도, 난해한 주제들을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풀어낸 책이다.

파스칼이 두 저서를 통해 펼쳐 보인 생각과 사고방식들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며 발전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중이다.

저자인 김형길 박사는 전주동부교회에서 학생 시절을 보낸 추억을 가졌으며, 올해 초 이 두 권의 책을 교회에 기증하며 교우들에게 안부를 전한 바 있다. 이 책들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교육관 1층 사론휴게소의 도서 비치대를 찾아보시길 권한다.

| 김형열 기자

## <동녘>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 김종철

편집인 : 안호건

제작팀 : 정재영(팀장)

김형열 윤미영 이승은 이현미 정소연 최조경

발행처 : 전주동부교회 전도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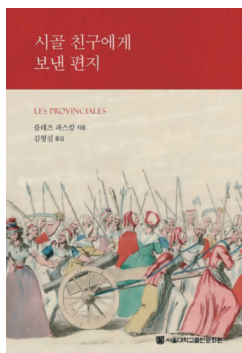
전화 (063) 275-7760 홈페이지 www.cjdb.or.kr

### <동녘> 제작을 후원하신 분들

김남기 김덕기 김미영 김숙희 김옥순 김장중 김진숙 김효순 노명우 박선규 박영삼 소화수 안한성 안호건 은경옥 이동주 이정숙 이정희 이준례 이현미 이흥재 임선영 임순 정소연 정숙자 정재영 최근수 최금미 최동욱 최순미 최원진 최조경 하기찬 (가나다순·2024년 4월 13일 현재)

전도편지 <동녘> 제작을 후원하실 분들은 1구좌당 5000원씩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9-3293494 이현미



#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앞장서 이끌어주고, 평생 동행하며 힘이 되어줄 존재를  
모든 인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족, 친구,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진리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 그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모이는 생명공동체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주동부교회**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전주 노회 소속으로, 1933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로서 정체성과, '학생교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음세대 사역에 전념하여 큰 열매를 거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새벽예배		매 일 05:00		본당
주일 1부		일요일 09:00		본당
주일 2부		일요일 11:00		본당
찬양예배		일요일 15: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19: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20:30		본당
영유아부		일요일 11:00		교육관 1층
유치부		일요일 11:00		본당 지하 1층
유초등부		일요일 11:00		교육관 2층
중고등부		일요일 09:00		교육관 3층
대학청년부		일요일 13:00		본당 4층
부부모임		일요일 13:00		지정 장소

## 오시는 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대로 88 063) **275-7760**

<동넵>은 전주동부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jdb.or.kr](http://www.cjdb.or.kr))와 네이버카페(cafe.naver.com/dongnyeok) 페이스북([www.facebook.com/groups/dongnyeok](https://www.facebook.com/groups/dongnyeok))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jdb\\_dongnyeok](https://www.instagram.com/jdb_dongnyeok))을 통해서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전도대상자 발송, 구독소감, 후원, 이벤트 등의 문의는 네이버카페와 이메일([dong\\_nyeok@naver.com](mailto:dong_nyeok@naver.com))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